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대장동 관련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성모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이재명 후보가 5,503억을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제1공단 부지 땅값 893억, 공원부지 공사에 304억이 들어가 합해봐야 1,200억만 들어갔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제가 직접 성남시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공단 공사 비용은 현재까지 공원부지 매입 및 보상비로 2,000억원 정도, 공원조성 공사비로 487억원 (77억원 증액 예정), 도로확장에 188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6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은 2020년 6월 23일에 성남의뜰(주)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모 의원은 공영방송에 출연하여 1공단 사업비가 1,200억만 사용되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근거와 출처를 밝히십시오. 만약 근거 없이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왜곡은 지난 월요일에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모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윤모 의원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 해준 대출은 2011년 발표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대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인용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원인분석 보고서’는 부실 대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부실 내용을 규명하고 부실대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보고서지 법적으로 대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는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드립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적혀진 대출은 각각의 유형과 별개로 모두 부실 대출이었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윤모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일반PF 대출건’중에서 (주)세움 관련 건에 한해서는 전주저축은행 관련 배임 건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고서에 적혀있는 일반대출건 중에서 (주)세움건 보다 액수가 큰 사업인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모 의원은 즉각 사실왜곡을 중단하고 부산저축은행 진상규명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사실 왜곡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알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시행자가 조우형씨에게 대장동 불법대출 알선수수료를 주었다고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조모씨의 변호인인 박영수 특검에게 조모씨 수사상황을 알려 주었는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몇십억원의 대출도 무모한 대출이라고 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 LH가 버젓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루어진 천억원이 넘는 대출이 정상 대출이라고 판단하였는지, 국민들 앞에서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2021.12.1.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